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28

회차 , 하나님 백성의 순종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28,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두 세션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순종의 주제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순종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두 세션을 진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특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서 순종이라는 더 광범위한 주제를 살펴보고, 그다음 매우 복잡한 주제인 구약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는 섹션을 진행할 것입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구약 율법은 이 모든 것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두 구절을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언급한 이 두 본문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구절들을 다시 자세히 다루고, 성경적 신학적 접근 방식이 그 본문들을 어떻게 밝히고 그 본문들이 성경 신학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 과정의 다른 곳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줄거리와 주제, 개념을 모아서 이 구절들을 풀어내고, 성경 신학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가치 있는지, 그리고 본문이 어떻게 성경 신학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고 이끌어 주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걸쳐 엮여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며,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의 서신에서, 아마도 이것에 대한 가장 흔하고 가장 명확한 표현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발견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마련에 대한 유일한 적절한 반응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의 업적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자신의 행위와 대조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마련을 적용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신약에서 믿음이 결코 상충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과 선행을 동반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시작하여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명, 특히 구약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주로 그가 은혜롭게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그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전달됩니다 .

그러나 구약에서도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에 대한 의존에서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주시는 바로 그 시작 부분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의 요구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20장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노예의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의 목록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의 선행 구원 행위, 그의 백성을 위한 그의 선행 공급,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의 선행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율법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만한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또한 새 언약의 틀 안에서 순종의 중요성과 순종을 이해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그 본문들을 다시 읽지 않겠지만, 에스겔, 특히 예레미야 31장과, 그들이 그것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읽을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은, 제 생각에, 신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 주시고, 그의 백성의 마음에 그의 율법을 기록하여 그들이 그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실 때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새 언약이 분명히 시작 되었으므로 히브리서와 바울, 바울 문헌,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을 분명히 시작하셨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법을 기록하고 자신의 영을 부어주어 그들이 자신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에 도달했을 때,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은혜로운 공급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또한 순종과 변화된 삶으로 응답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약에서 믿음과 변화된 삶이 서로 상치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동반되며 분리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에 의해 가능해지고 동기를 부여받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15절과 다른 복음서의 평행 구절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처음에, 우리는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하는 14절을 발견합니다.

때가 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믿음과 회개의 조합을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또한 악에서 돌이키고, 죄악에서 돌이키고, 순종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토마스 슈라이너는 그의 신약 신학에서 예수와의 새로운 관계가 삶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제안하시며 오셨지만, 그것은 믿음의 응답과 회개의 응답, 즉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순종의 중요성을 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과 그분께로 향하는 것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에서, 저는 이 본문을 읽지 않겠지만, 마태복음 25장의 맨 마지막에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미래의 심판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심판은 그들의 순종에만 근거하고, 그들의 행위에 근거하며,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미래 왕국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누가복음 8장 11-15절에서, 다시 한번, 열매를 맺는 것이 심판 날에 자유로워지는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다른 예들을 발견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변화된 삶과 순종을 통해 그분에 대한 믿음과 회개를 보여주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마도 이것의 가장 중요한 예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우리는 마태복음 5-7장에서 마태의 버전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산상 설교는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적어도 가장 완전한 예이며,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과 그분이 그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바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예이자 가장 충만한 예일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 설교를 이해하는 데는 마태복음 5-7장과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더 자세하고 긴 설명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도 두 설교 모두 같은 설교일 것입니다. 각 저자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 대한 설명에서 다른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산상 설교는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사회를 변화시키는 윤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변화와 변형을 가져오기 위해 제정되고 효력을 발휘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잠시 후에 예수께서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등의 시작되는 행복에 대해 살펴보면, 잠시 후에 그것들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산상 설교를 실천할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주로 사회 윤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이를 실천할 사람은 그의 추종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틴 루터가 주창한 또 다른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산상수훈이 주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고,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상수훈을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위한 준비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는 확실히 어떤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행복에 대해 살펴보면 거기에 어떤 진실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마태가 산상수훈 전체를 그렇게 긴 시간에 걸쳐 기록한 것을 보면, 마태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어느 정도 이것이 예수님의 지시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실제로 따르기를 기대하셨고, 어느 정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준비하거나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얼마나 구세주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산상수훈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왕국을 위한 윤리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진정한 윤리이며,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맥락에 놓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시며 오셨고, 예수님은 이제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분에게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왕국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에게 왕국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왕국, 즉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자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왕국, 즉 산상수훈을 내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의 유명한 문구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미, 하지만 아직은 긴장입니다. 즉, 예수님은 산상수훈이 사람들의 삶에서 이미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정도 산상수훈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따를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오는 왕국까지 완벽하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산상수훈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진정한 윤리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산상수훈에서 발견되는 그분의 지시에 따라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저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맨 처음에 나오는 행복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맥락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의 맥락에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11절의 행복에 대해 시작할 때,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왕국의 일부로서 삶을 사는 방법,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 왕국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기 전에, 그분은 산상 설교를 실천할 사람들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임이요. 이제, 바로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심을 주목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자신의 도덕적 파산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공허하거나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도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애도는 고통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삶이 그저 비참하고, 내 삶의 고통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애도는 구약의 배경을 비추어 볼 때,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허한 사람은 자신의 삶, 자신의 삶 속의 죄 때문에 회개하며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세상의 죄와 불의 때문에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을 애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6절이 이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충만함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들 . 세상과 자신의 삶에서 정의와 의로움을 갈구하고 목마른 자들은 그들의 영적 파산 때문에, 세상과 자신의 삶에서 죄를 애도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의로움과 정의를 갈구하고 목마른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산상수훈의 윤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오는 자들과 영적으로 파산한 것을 인식하고 율법과 하나님의 요구 사항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는 자들만이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실 의로움을 갈구하고 목마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은 훨씬 더 많은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든 산상수훈에서 읽은 행해진 의로움이라는 관점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 복음이 없다고 확신한 사람은 마틴 루터와 다른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을 읽으면 복음과 분명히 일치하는 듯합니다.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산상수훈을 실천하고 하나님 왕국의 의로운 요구 사항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분 안에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다시 한번 그 맥락에 넣어보고 싶은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맥락에 있는 산상 설교입니다.

사실, 첫 번째 복된 말씀에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의 왕국이요, 그들의 것이 하늘 왕국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는 4장에서 예수께서 치유를 통해 왕국의 일을 행하시려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파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7장,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제로 합니다. 즉,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변화시키는 능력 안에서, 그 능력 아래에서만 행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산상수훈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의의 일이 아니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설교에 그렇게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으며, 그저 우리의 죄성과 구세주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산상 설교는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왕국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전제 조건으로 가정합니다. 바울의 서신과 순종에 대해 말하는 내용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에 대한 순종의 반응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참고 문헌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문구가 그것을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상 설교이지만, 저는 그리스도인 순종이라는 주제 전체, 즉 그리스도인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에 대한 반응인 변화된 삶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우리는 멈추어서 살펴보고 비슷한 강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은 예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또 다른 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은유를 사용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곳이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거나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무르리라. 앞서 예수님은 15장 1절부터 내가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정원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욱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은 열매를 맺고 예수의 명령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특정한 본문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은 마찬가지로 믿음과 회개가 구원에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복음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믿음이지만, 회개 또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회개는 문자 그대로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약성서에서 회개는 전체 자아의 전환을 암시합니다.

네, 무언가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데는 지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것은 죄에서 돌이키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의지, 즉 재조정과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믿음과 회개는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바울 문헌으로 넘어가서 복음서에서 이미 본 것 중 일부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여러 본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에 순종으로 응답하고 응답하여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도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점은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의 윤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인 논평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에서 새 언약의 중요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의 주제를 살펴보았고, 고린도후서 3장과 같은 본문에서 바울이 죄 사함을 언급한 것,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한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새 언약과 관련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과 성령을 받는 것은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하지만 고린도후서 3장과 같은 본문에서 바울은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새 언약에서, 특히 에스겔 36장과 예레미야 31장에서 다시 보듯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법을 기록하실 것이라고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의 시대에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마음에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새 언약의 변화된 삶을 반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에 따르면, 새 언약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에 참여하고,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사람들이고, 새 언약에 속하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으므로, 정의에 따르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의 영을 부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살고, 새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순종과 선행, 변화된 삶의 반응으로 새 언약 구원의 현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바울의, 또는 제 생각에 신약 전체의 순종과 변화된 삶에 대한 강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새 언약 관계의 맥락에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몇 개의 본문을 살펴보자면,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나 소망에 순종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첫 번째, 출발점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른 맥락에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언약 성령이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이해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을 22절로 보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육체의 행위를 설명하는 19절과 21절 이후에, 즉, 제게 속한 행위는 율법이 궁극적으로 극복하고 없앨 수 없는 옛 시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설명합니다. 즉, 이것은 새 언약 성령 아래에서 사는 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삶의 종류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착함, 신실함, 온유, 그리고 율법이 없는 것에 대한 자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의로움이나 변화된 삶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부여된 새 언약 성령

안에서 삶을 살거나 걷는 것의 불가피한 결과이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든 이것이 단순히 자동적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할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갈라디아서에서 구약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논의의 맥락에서, 바울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참된 순종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부어진 새 언약 성령의 결과일 뿐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안에서의 삶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나 변화로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에 대해 조금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기꺼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군가가 죄에 걸렸다면,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온유하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의 맥락에서 삶을 사는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아닌데도 자신이 무언가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자는 자신의 행동을 시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도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 목적은 이러한 명령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자세히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맥락에서도,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여전히 그들이 따르기를 기대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들도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명령하며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뼈에 살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뼈에 살을 붙여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본문, 그리고 아마도 제가 논의할 본문 중 가장 친숙한 본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시작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로 된 것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에 응답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이라 . NIV에서는 수작업이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즉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는데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도록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이제 더 나아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바울이 구약성경의 새 창조 이미지와 그가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새 창조 이미지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5장, 5.17절과 18절.

우리는 이제 선행을 의미하는 새로운 창조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일부로 창조되었으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열매를 맺거나 새로운 창조의 일을 맺는 변형된 삶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창조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새로운 창조의 삶을 변형시키는 변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과 선행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새 창조에 속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변화된 삶을 수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행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이는 그들을 새 창조에 데려오고, 이제 새 창조에 속하게 하며, 이는 새 창조의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수반합니다.

로마서 6장은 아마도 순종과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순종과 행위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실제로 가상의 반대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하거나 누군가가 바울의 설교에 대해 제기했거나 제기하고 있는 진짜 반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장은 바울이 5장에서 말한 것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제기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5장에서 그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더하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죄가 더해진 곳에 은혜가 더욱 더해졌다고 말하면서 끝맺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상상할 수 있고, 바울은 6장에서 그것을 예상합니다. 글썬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죄가 더해지는 곳에서 은혜가 더해진다면,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은혜를 더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가 더해지는 곳에서 은혜가 더해진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반대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물음으로써 대답합니다. 죄에 죽은 당신은 어떻게 더 이상 죄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 생각이 그저 우스꽝스럽다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하기 위해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또는 은혜가 죄를 돌보고 덮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죄에 대해 죽었을 때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죄에 대해 죽었을 때 어떻게 죄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 죽는다는 생각은 다시 한번 죽음이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죄의 통치와 지배를 끝내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바울이 편지를 쓴 사람들과 오늘날의 독자들은 여전히 살아 있고 그 순간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당신은 죄에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은 현재의 악한 시대의 통치와

당신의 삶 속의 죄의 통치를 끝내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글썄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사실상 죽은 분과 합하여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문자 그대로 실제로 죽어서 죽음의 통치와 현재의 악한 시대의 통치를 끝낸 분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그 죽음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바울은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해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은 우리 삶 속의 죽음의 통치와 옛 시대의 통치를 죽였습니다. 대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해져 삶의 새로움 안에서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다시 한 번 새 창조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류하고 연합함으로써 새로운 창조의 부활적 존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12-1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노예가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자신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신 유일한 선택은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서 의의 노예와 종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의 존재는 이제 복음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윤리적 권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바울의 의미를 봅니다. 그의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 안에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절부터 그것을 더 자세히 풀어냅니다. 하지만 요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존재, 즉 내가 그의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 즉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그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12절로 시작하는 권고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종종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언어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문법적으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러한 라벨에 함축된 문법과 항상 엄격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종종 지시적과 명령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시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6장에서 바울은 로마서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 곧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옛 사람과 죄의 몸이 옛 시대에 속해 있고, 아담 안에서 옛 시대의 권위와 통치 아래 있고, 옛 시대의 영향과 통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강하고 단호한 언어를 주목하세요. 바울은 옛 자아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약간 방해받거나 묶여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그는 매우 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죄와 죽음의 옛 시대에 속해 있고, 그 통치와 통제 하에 있는 옛 자아는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시어입니다. 그는 이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창조의 삶에 참여한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사실로 인해 참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12절과 그 이후의 명령법을 가능하게 하고 이끌어 줄 뿐이므로 명령법은 지시사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지시사는 명령으로 이어지고 명령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미 아직은 아닌 긴장의 일부입니다. 지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의 존재 덕분에 이미 참된 것을 설명합니다.

명령, 명령은 우리가 아직 아닌 시대에 살고 있고 최종 완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시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죄에 죽었습니다. 옛 사람, 아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옛 시대에 속한 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는 그의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시작된 새 창조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지시입니다. 그것은 그런 다음 의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제공하는데, 그것은 아직 나의 존재가 아닌 동안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변화된 삶과 순종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바울의 윤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전체를 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32절은요. 저는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본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것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32절은요.

보자. 그러므로 너희 각자는 거짓을 벗어버리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너희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분노에 차서 죄를 짓지 말고, 분노하는 동안 해가 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마귀에게 발판을 마련해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기 손으로 유익한 일을 하여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건전한 말은 입에서 나오지 말고 도움이 되는 말만 하세요. 그리고 다른 명령들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뒤로 돌아가서 그 전에 나오는 섹션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 25절 이하의 명령문에 주목하세요. 하지만 20절에서 24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배운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관해 듣고 진리에 따라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곧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이전의 삶의 방식에 관해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최악적인 정욕으로 타락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마음의 태도가 새롭게 되고,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창조된 새 자아를 입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비슷한 것을 봅니다. 사실은 9절과 10절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옛 자아와 새 자아의 언어입니다. 저는 실제로 옛 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번역을 좋아하는데, 성별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옛 사람인 아담 안에서와 새 사람인 그리스도 안에서와 저에 대한 개념을 잘 포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언급은 종종 옛 자아와 새 자아로 번역되는데, 이는 다시 말해서 현재의 악한 시대의 지배 아래,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의 속박 아래 있는 나에 대한 언급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특징인 구원의 새 시대에 속해 있는 나에 대한 언급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권위와 통치의 영역 아래 있는 나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것은 지시적일 것입니다. 지시적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지시어를 발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지시어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옛 시대와 그 관행의 지배와 통제와 영역 아래 있는 나를 벗어버렸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속한 새 시대를 입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미루고, 다른 하나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주변의 명령을 실천하고, 주변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를 제공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에 대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에 대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지시, 그의 윤리는 기업적 맥락에서 제시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특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저는 다른 곳에서도 윤리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개인의 갱신만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갱신도 포함하겠지만, 전체 공동체의 갱신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변화는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 이러한 명령을 읽을 때, 대부분은 공동체의 맥락에서만 성취되고 행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3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자신을 옷입으십시오. 서로 참아주고, 누가 원망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미덕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완벽한 일치로 묶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것은 평화의 느낌, 내 삶에 압도적인 평화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평화는, 앞서 화해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세요.

여러분은 한 몸의 일원이므로 평화로 부름을 받습니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에서 갈등과 적대감과 전쟁과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게 하라. 이제 제 질문은, 여러분은 어떻게 고립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립된 상태에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연민을 보일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서로 참을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고립된 상태에서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것들은 모두 바울이 우리가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미덕들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공동체의 맥락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지점까지의 지시, 또는 그의 윤리나 순종과 변화된 삶에 대한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바울에게서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하라는 지시, 순종을 추구하라는 지시를 발견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옛 시대의 옛 자아를 벗어던졌거나, 이미 분리되었고,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속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적 존재에 속하는 새 자아, 즉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새 창조는 바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변화시키는 힘을 제공합니다. 바울에게서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창조적 존재를 입는 과정은 물론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아직은 긴장이 아니라는 것을 공유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사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약해지고 타락한 현재의 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명령과 명령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의 존재는 새롭게 된 삶을 사는 동기와 능력을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가 부활을 통해 시작하는 새로운 창조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의 존재는 새롭게 되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콜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었던 새 사람, 즉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되고 있는 새 사람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존재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의 삶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열매를 맺는 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야고보서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아마도 신약에서 기독교의 순종과 선행,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산출한 선행에 가장 초점을 맞춘 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그것을 배치한 맥락을 다시 한 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들어, 1장 8-22절에서 때때로 야고보가 순종과 선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역사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가치에 의문을 품게 하거나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전통적으로 그것이 쥘더미 같은 서신이라고 말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야고보에게 와서 야고보가 순종과 하나님 백성의 선행을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8-2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낚으시기로 택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창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야고보는 다시 한번 창조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는 이미 새 창조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20절에서 이렇게 계속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노하기는 더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여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연한 모든 도덕적 더러움과 악을 제거하고, 당신 안에 심겨져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다시 말해서, 야고보에게 있어서도 순종과 하나님의 의를 산출하는 것은 새 창조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의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에게 있어서도 순종은 궁극적으로 새 창조의 현실 아래 사는 것의 산물이며, 하나님 말씀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의해 산출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있어서도 순종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거나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미 태어났다는 사실의 일부이며, 새로운 창조의 일부로서 거듭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변화시키는 힘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야고보서에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본문은 2장에 나와 있으며, 바울의 가르침과 종종 상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는 야고보서 2장을 살펴보고 바울의 가르침의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순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8, 신의 백성의 순종입니다.